

# 새 언약이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 \* 3/12(금) 사도행전 14-17장

| 베드로 (1-12장)  |   | 바울 (13-28장)  |
|--|---|--|
| 예루살렘 (1-7장)  | 유대와 사마리아 (8-12장)  | 땅 끝 (13-28장)   |
| <b>복음의 성장</b><br>승천, 오순절 성령, 선포와 표적,<br>일곱 집사 1-6장<br>스테반 순교, 핍박과 박해,<br>선포와 표적 7-8장<br><br>1-4장 거룩한 영, 성령이신<br>5-7장 성전보다 크신 | <b>복음 확장의 초석</b><br>사울의 회개 9:1-31<br>베드로와 고넬료 9:32-11:18<br>안디옥 교회 11:19-30<br>베드로 투옥, 헤롯의 죽음 12장<br><br>8-10장 부활하신<br>11-13장 온 세상의 왕이신 | <b>복음의 확장</b><br>1차 여행, 예루살렘회의 13-15:35<br>2차 여행 15:36-18:22<br>3차 여행 18:23-21:16<br>핍박, 잡힘, 상소, 로마행 21:17-28장<br><br><b>14-17장 새 언약이신</b> |

## Before 줄치며 읽기

복음을 받아들이는 자,  
복음을 배척하는 자,  
그들의 반응과 이유를  
각각 살피며 읽습니다.

## After 묵상하기

나는(우리 공동체는)  
성령님께 순종하고  
있습니까?

### 참고도서

백주년기념성서주석  
바울평전(툼 라이트)

예수 공동체는 안팎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.

❶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았습니다. 할레나 음식 규정, 안식일 등의 측면에서 보면 분명 유대교와 별개의 공동체인데 왜 제국의 종교 활동에는 불참하는가? 이러한 모임들은 종교적 성격을 넘어 공공의 안녕을 위해 제국에 속한 모두가 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였습니다. 공식적으로 열외가 인정된 것은 유대교뿐이었습니다.

❷ 제국은 누가 유대교인인지, 그리스도인인지를 떠나 <모든 유대인들>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. 합법적으로 특권을 누리던 회당의 유대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에 대한 심기가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.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저 할레만 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쉬운 방법을 택하자고 성도들을 회유하기도 했습니다.

❸ 이방인 선교를 두고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었습니다. 과연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가? 할레와 율법, 절기 준수를 필수 조건으로 걸어야 하지 않을까? <하나님 언약>도 함께 나눴는데,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할레나 율법을 나누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?

바울과 바나바는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하고자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(15:2).

교회의 다양한 목소리는 어떤 면에서 당연했습니다.  
인종이나 혈연, 지역적 특성에 따라 모인 공동체이거나  
강력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생성된 집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.  
예수 공동체는 유대인, 헬라인, 노예, 자유인, 남녀의 구분이 없었습니다.  
<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참으로 믿는가? >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.

구원의 도구는 시대마다 달랐지만 구원의 주체는 한 분 하나님이셨습니다.  
옛 도구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<악한>것으로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.  
할레나 율법도 필요한 때에, 그 기능과 소임을 다한 것입니다.  
이제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. 예수님입니다.  
예수님은 구원의 도구들 중 하나가 아닙니다. 구원의 주체입니다.  
모든 예언과 언약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.  
옛 언약과 방편들도 <하나님>에 대한 <믿음>으로 받았던 것처럼,  
새 언약도 <하나님>에 대한 <믿음>으로 받으면 됩니다.

문제를 해결하려 모인 예루살렘 회의(행15장).  
바울에게는 오랫동안 연구하며 정리한 신학적 입장들이 있었습니다.  
성경적 논리들을 열거하며 상대방을 함구하게 할 만한 능력이 있었습니다.  
그러나 바울은 '믿음'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흐름을 따랐습니다.  
성령이 일하신 사역 현장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(15:3, 4, 12).  
베드로 역시 성령께서 하신 일 그대로를 전했습니다.  
야고보도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 나누었습니다.  
성령께서 회의의 주관자가 되셨습니다.  
(15:7-11, 14-18 10:14-16, 44-47)

출애굽 시대에도 수많은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(출12:38).  
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의 여정에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.  
새 출애굽의 시대, 수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함께 했습니다.  
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에 동참합니다.  
하나님의 새 언약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합니다.

새 언약이신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 
그분의 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.  
나의 말과 생각, 신앙과 신학적인 담론들을 내려놓고  
한 성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공동체입니다.